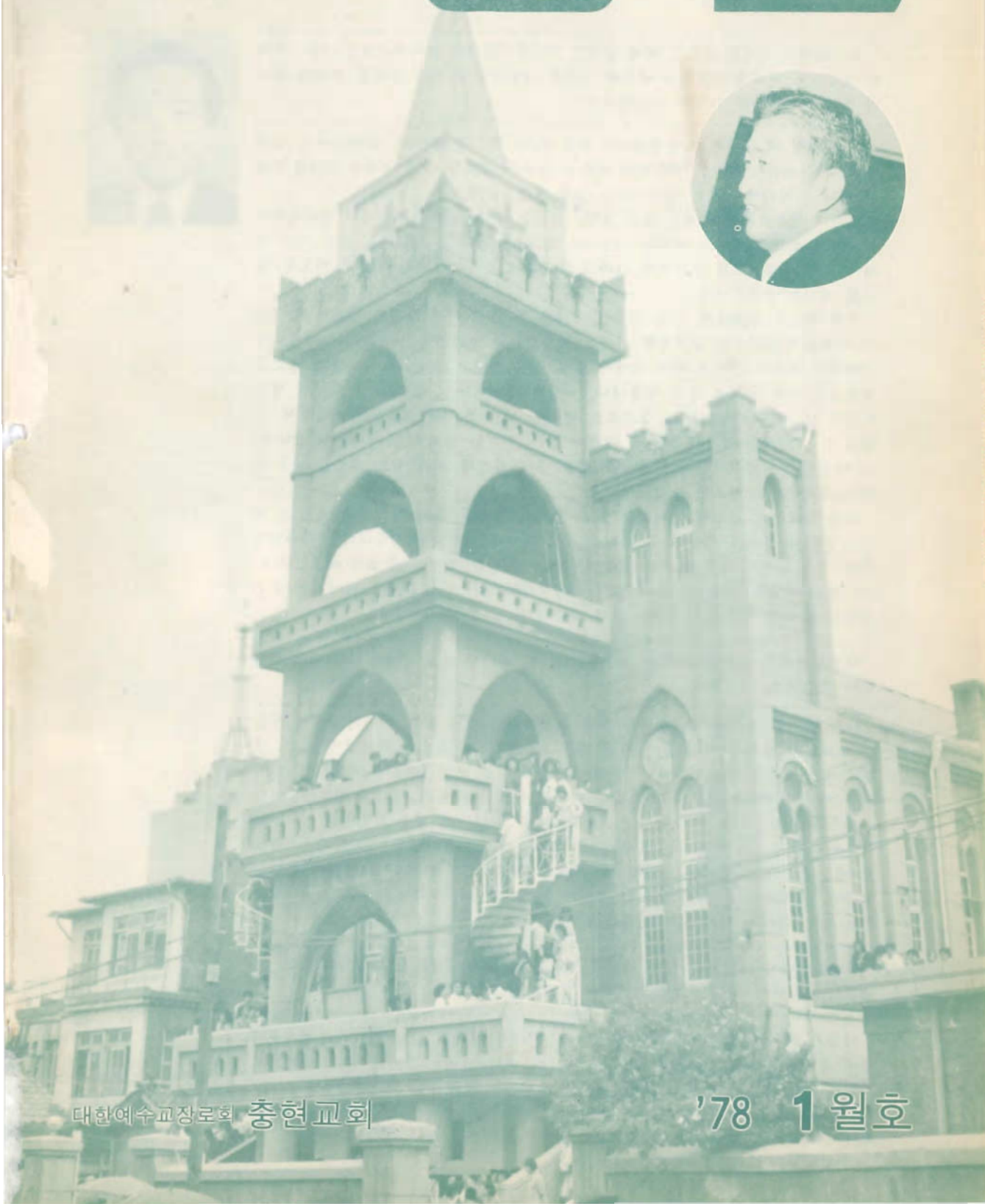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8 1월호

에덴동산에서의 의문점들

성경에 계시된 창조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창 2 : 21)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빗대는 여자의 갈빗대 수보다 하나가 적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부흥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빗대 수가 여자의 갈빗대 수보다 하나 모자라서 남자는 병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꼭같이 갈빗대수가 12개이고 소는 13대이고 돼지는 14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갈비를 많이 먹기 위해서 축산 진흥책으로 소갈비가 14대가 되도록 하는 대신 머리는 적게 되도록 개량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지 사람의 갈빗대가 남녀 꼭같이 12개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창세기의 기사를 의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와 같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더욱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는 분명 하나가 모자란 병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 즉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모든 남자는 여자와 꼭같은 12개가 있는 온전한 육체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몸과 같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유전인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서 다리를 잃은 남자가 장가를 들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아버지 본래의 모습인 두 다리를 갖고 태어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의 사람 본래의 모습대로 생산케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 모자란 병신이었으나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여자와 꼭같이 12개라는 것이 맞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했느냐, 아니면 놀고 지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락 전 에덴동산에서의 생활은 흔히 노동이라는 것이 없이 나비와 춤추고 새들과 노래하며 놀면서 지낸 줄 알지만 실은 노동을 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활의 법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 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스리며 지킨다는 것은 분명히 노동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으므로 수고와 땀흘리는 고생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천당엘 가도 놀고 즐기는 천당이 아니라 일하며 즐기는 천당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므로 수고롭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면 얘기를 낳았겠느냐, 안 낳았겠느냐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동산에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을 것입니다(창 1 : 28).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생산의 법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후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일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네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창 3 : 16)이라는 즉 해산하는 데 고통이 있으리라는 벌을 더한 것입니다.



월간 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1월의 행사

- 1 일 / 신년예배 · 공동치리회 · 정기제직회
 3, 4 일 / 교역자 수련회
 5 일 / 장로수련회
 5-7 / 부흥회
 6 일 / 직원수련회
 8 일 / 남전도회 · 산업전도회 · 권사회 총회속회
 9, 10 일 / 평신도 수련회
 12 일 / 제직 권사 수련회
 13, 14 일 / 교사 및 성가대 수련회
 15 일 / 여전도회 월례회
 16 일 / 교육위원회 · 전도위원회총회 · 출판위원회총회
 17 일 / 구역권찰회총회
 19-22 일 / 고등부 동기 수양회 (제 9 회)
 22 일 / 구역권찰회 월례회
 23-25 일 / 유치부 · 유년부 · 겨울어린이 성경학교
 30-2월 2 일 / 새신자부(어린이) · 초등부겨울어린이성경학교 · 중등부동기수양회

월간 총현

1월호 차례

- <이렇게 답한다> 에덴동산
 에서의 문제점들 / 이성근 목사 2
 <설교>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
 / 김창인 목사 4
 <권두언> 새 총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주간 6
 <특집 : 1978년의 우리의 과업>
 · 건축위 — 금년에 시작하는 새성전의 면모 ... 7
 · 전도위 — 내적인 충실 기하기로 10
 · 교육위 자체사업 및 교사훈련 강화 12
 <시편에서 읽는 주간의 만나> 13
 <1200자 칼럼> 신앙성장의 비결
 / 오태용 집사 14
 <찬송가해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4
 <구역장노우트(24)> 사무행정교육(2)
 / 백성룡 목사 15
 <구역소식> 15
 <교회뉴스> 16
 <기자석 · 편집하고나서> 18
 <사진으로 보는 총현교회 교역자> 19
 <실로암 못가에서> 20

총현교회 신조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표지설명 : 올해 25주년을 맞는 우리교회 예배당
 올해는 새성전을 시작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

성경/시편 23:1-6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여러분과 저는 일초도 쉬지 않고 굴러가는 지구 덩어리를 타고,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서 지난 해는 영원한 과거로 보내버리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소망과 계획을 이루는 데에는 노력,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인데 길을 바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차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면 고생하고 망신하겠습니다. 길을 잘못 가다가 구렁텅이에 떨어지면 옷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남에게 패를 끼치겠습니까. 가시밭길을 발중에 소경처럼 가다가는 옷도 젖어지고 팔다리도 상하는 고생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양들과 같습니다. 양! 여기에는 몇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몸도 튼튼하고 지식도 지혜도 기술도 많아서 산을 뚫을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죄악을 이기는 데는 무력하기가 지령이와 같습니다.

둘째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왜 어리석어? 인간의 과학이 달나라까지 여행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같으면서도 복 받을 길을 가지 못하고 망할 길을 골라 가는 때가 있는 바보노릇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양의 행복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배고프지 않고 원수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 편안하고 살찡니다. 삼꾼을 만난 양은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목자, 그런 삼꾼이 없어질 때에 이리에게 찢기워집니다.

끊임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이신 여러분. 양처럼 연약한 여러분! 주위에는 악마가 가득차 있는 어러운 세파를 가야 되는데,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서 가지 맙시다. 아무데나 따라가지 말고, 선하신 목자만 믿고 따라갑시다.

이 시편 제2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는 암살품이란 자가 있었는데 인물이 준수하고 머리가 뛰어나지만 형들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할 것을 걱정한 암살품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다윗 왕은 머뭇거리지 않으셨을

이 예루살렘을 내주고 신하 몇사람과 함께 망명길에 나섰습니다.

처참하기 그지없고 앞이 캄캄한 그 때에 다윗 왕은 울고 앉지도 않고 저주하고 이를 갈지도 않고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를 지어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나는 시편 제23편을 좋아합니다.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때에 능률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다윗! 너무도 존경하고 싶습니다. 너무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다고 꼭 좋은 일만 있으려니 합니까? 무슨 일이 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시렵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돈 따라, 권세 따라, 명예 따라, 남자·여자 따라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한분을 목자로 모시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갑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1.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신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 잘되면 칭찬을 받다가 교만해져서 실수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다가 실수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사정을 몰라 불인정해서 실수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 다윗을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배가지 실수하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하고 원망하기 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쉽지만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찬송을 부르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신분을 지키고 실수가 없습니다.

둘째 신하들 앞에 실수가 없습니다. 속담에 서어머니한테 책망 들으면 개 열구리를 찬다고, 사람은 누구한테 억울함을 당하면 공연히 만 뜻에 가서 분풀이하는 것이 고작인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따라가는 신하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정치 없이 도망가는 위태로운 길을 가는데 나를 따라 가면 위험이 따른다.” 다윗은 신하들을 아끼는 나머지 위태로운 일을 면하도록 타이르고 위로하면서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세제 악한 사람을 대하는 데에 실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신도 못신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장패가 불량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이 못난 개같은 자식아! 쫓아내라……” 다윗 왕에게 능욕·공갈·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왕 옆에 아버지 장군이 틈다 못해 “대왕님! 저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칼에 목을 자르고 오겠습니다.” 천하 장사 아버지 장군의 말에 “그냥 뒤라! 내 몸에서 난 아들녀석이 반역하는 판에 딴 사람이 내게 욕을 풀 하는 것쯤 뭐 잘못된 것 있니? 내버려 두라. 내가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 옳고 잘못된 것 없는데 욕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니, 때를 기다리면 되지 않니?” 장군의 분노를 막으면서 이처럼 다윗 왕은 악한 자를 대할 때에 실수가 없습니다.

네제 악한 자식에 대하여 실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난 아들에게서 그런 반역을 당하면 보통은 “저런 놈은 망하라!”고 입으로 저주를 하겠는데, 다윗은 못된 자식, 악독한 인간인 암살자를 향해서 욕하며 저주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 생명을 돌아봐 줘라!” 하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습니다.

2.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신자는 생활에 궁핍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쫓겨가는 망명객입니다. 신도 못 신고 도망가는 다윗 왕의 위치로서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람이 돈을 모으면 찾아 오는 손님이 많고, 사람이 벼슬이 높아지면 선물이 많이 오지만, 돈이 없어지고 지위가 떨어지면 개 한 마리 일쯤 않고 선물 하나 없는 것이 인간의 상정입니다.

자, 임금님이 쫓겨가는데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그러다가 암살자의 칼에 목이 떨어질까 봐서 다윗과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꼭 굶어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열흘, 스무날 도망다니는 동안에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십만 사람이 가슴을 치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왕을 찾아 옵니다. 30만명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다윗 왕을 위해 생명을 내놓겠다는 충신들이 모여듭니다.

다윗과 그들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던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실력이 이미 없어졌는지라 굶어야 되지만, 인격을 지킨 사람은 돈 떨어져도 사랑과 대접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신자는 위태로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보든지 내가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양 한 마리처럼 보일게다. 골짜기의 이리·곰·사자 등이 많이 있다고 하자, 그래도 나는 겁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밑에 내가 앉았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랴? 누가 나에게 손을 대겠느냐? 사람 보기에 혼자 같으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내게 손댈 자가 없다!”

너무나 능률합니다. 너무나 능률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발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신자는 억울한 일로 안 끝나고 상급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천명, 만명 원수가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다 보니까 손댈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손을 못 댈까? 주인이 칼을 뽑아 들고 있습니다. 억만 원수가 나를 치려고 따라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 이 상이 무엇입니까? 연회석의 음식상을 베풀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연회의 잔치상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음식을 받아 보고 웃으면서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식이 그릇에 넘칠 만큼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돌아서려니 이미 저들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원수들이 구리줄에 결박당한 포로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지칠 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이 잔치 석상에서 대접받는 모습을 꼭 보리라.

5.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은 내가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 궁궐에서 쫓겨났다, 성전에 갈 수 있는 길이 끊겨졌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도 있고 내 육신도 며칠 있다가 성전에 또다시 돌아간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시니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가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 궁궐로 돌아가고 성전에 돌아가 예배도 드리고, 더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이 시편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양의 행복은 목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 시편을 꼭 외우고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다윗이 받은 복을 받으십시오. 금년엔 우리의 여생은 하나님만 믿고 그의 말씀만 순종하여 따라갑시다!

새 충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 역사를 꿰뚫고 흐르며 여러가지 변혁을 가져다 준 큰강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강이 무슨 강인지 처음에는 판별하기 힘들다.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피와 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종횡의 크기가 비길데 없는 세계 역사이지만 오직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무엇이 한 나라의 천년의 안녕을 도모하여 벼계를 돌궐 빼고 태평을 구가하며 자자손손의 생명을 보존케 하였는가? 이것은 먼저 자기 백성의 피와 살이 아낌없이 원수의 피와 살로 더불어 수없이 찢기고 끝없는 흐름이 있어서 비로써 원수의 피를 강과 같이 흐르게 하였고 원수의 살을 마음대로 찢어서 자기나라의 기초를 만세반석 위에 세웠고 그 후손이 천추를 두고 남보다 우월한 자리에 앉아서 강한 백성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그 백성들이 전부 조국을 위해 제주(딤후 4:6)로 그들의 피와 살을 붓는 일 즉 백성이 먼저 제물의 죽음이 되어서 후손이 행복의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헬라의 철학과 지혜가 피와 살이 날뛰는 로마의 사나이들의 말발통에 짓밟히고 말았고 미국 남부의 큰 옥토를 가진 남군도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피와 살 앞에 통일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군사와 부요 지혜를 가지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키 위하여 강제로 신앙의 탄압을 자행하던 로마제국이 기독교가 받은 탄압으로 무수히 흘린 피와 수없이 찢기운 살로 결국은 로마의 대철인 세네카로 하여금 「패한 자가 이긴 자에게 법을 주노라」고 부르짖게 하여 기독교를 로마 대제국의 국교로 삼게 하였다.

교황청의 권세는 온 유럽과 아프리카의 제왕까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되므로 온 유럽의 병력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트를 눌렀으나 수없이 눌리고 찢기운 청교도들의 피와 살로서 복음의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황포와 쇠국정치로 굳게 굳게 굳어진 대원군의 상투도 토마스 목사의 홀리고 찢긴 피와 살로 삼천리강토를 격서 덮게 되었으므로 드디어는 세국의 철벽이 깨져 압력과 죽음에서 허덕이는 이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게 되고 소망 없는 이 백성의 입에서 생명과 소망의 찬양소리로 천지를 진동케 했으니 “내 피를 마시며 내 살을 먹으라”하신 피와 살의 말씀이 한국 교회 백년사의 첫장을 장식하였다.

오늘의 교회는 제도도 튼튼해지고 조직도 커졌고 사업도 팽창하다고 한다. 그러나 진리는 메말랐고 생명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우리의 생명은 피와 살에 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이 땅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교파의식보다도 유명무실한 사회참여보다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어 살고 그리고 감격하여 나의 피와 살을 쏟아야 지상에서 보람된 삶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충현교회는 새해에 들어 서면서 후손에게 물려 줄 새 성전건축과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 특히 공산권 선교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심장에서 끌어오르는 뜨거운 피를 쏟는 일이다.

일차대전 후 유대인들이 윌슨(Willson)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힘을 얻어 “우리에게도 독립을 주시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겐 땅값을 전부 치르겠소”할 때 윌슨은 “독립은 피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세상나라도 피의 희생이 없이는 못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어찌 희생이 없이 살 수 있겠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주관>

금년에 시작하는 새성전의 면모

◇..... '78년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의 하나가 새 성전 건축이.....◇
 ◇.....라는 것임을 총현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말로만 하던 것을 눈.....◇
 ◇.....앞에 전개시켜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교회설립 10주년이 되는 1963년에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여 1970년 12월에 지금의 논현동에 9,000여평의 건축부지를 마련하였으나.....◇
 ◇.....시(市) 당국의 한지계획에 따라 6,067평으로 확정된 후 시당국이 행정적인 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되다가 1977년 8월에 어려운 허가를 얻게 되었다. 허가 이전에 교회에서.....◇
 ◇.....는 '77년 5월 15일에 특별 성전건축헌금을 전교회적으로 작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중에 때를 맞춰 8월에 대지문제의 해결을 보았었다. 대지문제가 해.....◇
 ◇.....결되면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기필코 주춧.....◇
 ◇.....돌을 놓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써 건축위원들께서는 매우 분주하시며 많은 관심과 연.....◇
 ◇.....구를 하시고 계신 중이다. 이에 대하여 온 성도들이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는가? 에 대하.....◇
 ◇.....여 알아야 하고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되어야겠기에 월간총현에서는 성전건축의 실무를 말.....◇
 ◇.....고 있는 건축기사 최 환 집사를 월간총현의 간사인 고재원 집사가 찾아 그동안의 진행정.....◇
 ◇.....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고 : 머리속에 있던 성전이 눈앞에 이루어져야 할 엄
 숙한 시간이 된 듯합니다. 금년은 온 교회가 숙원하던
 성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해인 듯합니다. 이에 대해
 성전건축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본전제에 대해서 온 성
 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
 시요.

100년 대계를 내다본 성전

최기사 : 성전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장소의 협
 소와 천국 일꾼을 키우기 위한 교회로서, 땅끝까지 복
 음을 전파하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
 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성전건축의 기본전제로는 100년대계를 내다 보아 앞
 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제반 사항을 조사 및 추계
 하였으며 성전본당은 재래식으로 고딕건축양식을 모방
 하여 외부는 석조로 내부는 현대식 장치로 하되, 경건
 하고 엄숙하게 장엄한 분위기를 갖게끔 건축하고자 합
 니다. 물론 100대계를 위해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이며 본당은 5,000여명(20년후의 대에배 참석 교
 인수)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동양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 될 것입니다.

교육관과 선교센터는 현대식 건물로 건축할 방침으
 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래식의 성전건물과 현대
 식의 교육관 선교센터를 여하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
 인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것을 잘 조화시킬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성전 건축 연차 계획표 (표 1)

연도 계획	'77년 8월	'78년												'79년	'80년	'8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 전 건축 설계	←															
설 계 발 주	←															
토 목 공 사 (정 치 작 업)		←														
성 전 (본당) 전 속									←							
기 초 · 지하실 · 문 조 외 장 · 내 장									←							
교육관 · 교역자 아파트														←		
선교센터 및 부대시설																←

년간투자액 : 4억원



금년도 사업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제일의 성전이 될터

새성전 건축의 계획과정 (표2)

고: 성전 본당과 교육관 및 선교센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신다면?

최기사: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개 본당은 2층으로 하여 폭이 42m 길이 72m(내부 길이 55m)로 이에선 신자석, 강대, 준비실, 목사님대기실, 목사님 기도실, 자모실, 성가대석, 장로석, 음향조정실, 조명조정실, 녹음실 등이 들어가며 본당 밑은 지하실과 미니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은 각부 주일학교 사무실, 각부실(전도위원회실, 남전도회실, 여전도회실, 권사회실, 산전전도회실, 제직회실)과 연구부실(출판위원회실, 월간충현 편집실, 인쇄실, 기획실)과 성경학원(교무실, 교실), 도서실(카아드열람실, 소지품보관소, 열람실, 서고), 성가대실, 성가연습실 등이며 종합사무실은 교회사무실, 구역카아드정리실, 현금집계실, 당회장실, 당회원 휴게실, 교역자 사무실, 당회실 등이 들어가며 선교센터는 세계로 향한 센터로 교회적이기 보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센터로 설계할 구상입니다.

각기 소요면적은 20년후의 인원수를 기준으로하여 1인당 필요면적에 총인원수를 곱하여 얻은 면적으로 할당하여 면적을 분할할 것이며 주차시설까지 물론 완비해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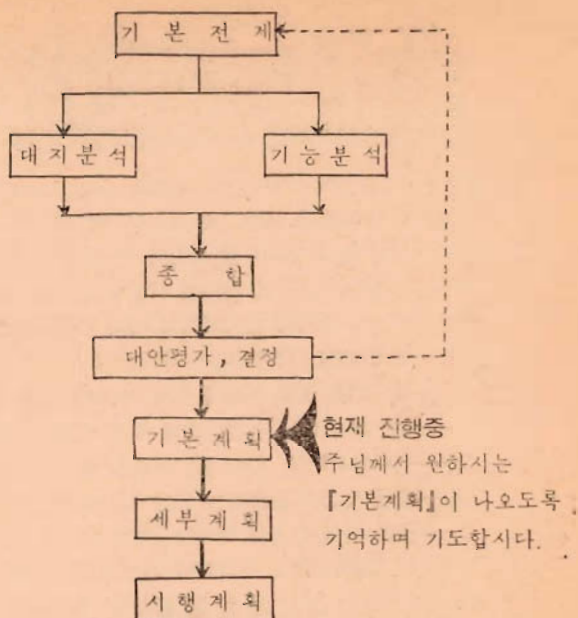
건축비만 되면 2년만에 끝낼 수도

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작년부터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사: 먼저 부대시설은 총 6,000여명에서 건폐율을 40%로 보아 2,400여명이 건물의 평면면적의 면적이므로 약 3,600여명에 운동장(500~1,000여명) 옥외 휴게공간 녹지공간 가로공간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마 충분히 현재의 취약점을 살려서 주일 하루를 교회에서 지내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케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만큼 자신있게 내놓은 것은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대략 5년을 잡아 봅니다. 실제 성전건축만을 계속한다면 2년이면 충분하지만 자금관계로 어쩔 수 없이 년차계획으로 1년에 4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5년을 잡아 봅니다. 그 1차년도가 바로 금년이 되는데 금년의 계획은 3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3월부터 7월까지 토목공사를 마칠예정이며 8월부터 본당 기초와 주춧돌을 놓고 지하실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금년은 정지사업과 주춧돌 놓기

'79년에는 골조공사 외장 내장공사를 하여 본당건축이 완료되며 가능하면 교육관 지하실까지 '79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80년에는 이어서 교육관과 교역자 아파트를 병행하여 건축하며 '81년에는 선교센터와 기타 부대시설의 건물을 건축하여 새성전건축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의 사업인 아름다운 설계와 정지작업 및 지하실과 주춧돌 놓는 문제에 대



해서 기도 많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3월이면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성도님들께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최기사: 죄송합니다. 아직 성도님들께 제시해 드릴 만한 설계까지는 못된 듯합니다. 아직까지 자료 분석 정리 단계이며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전제를 갖고 대지분석과 기능분석을 마쳐 종합하여 대안평가와 결정을 하여 이에 따라 기본계획

설계는 기본계획 단계에

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구상과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식수계획, 공급처리계획, 관리계획 등에 대해 좀더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리 종합 결정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제시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 마지막으로 실무진에서 수고하시면서 어려운 점과 꼭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사: 감사합니다. 여태껏 기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가장 애로점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건축비의 문제입니다. 연투자 4억

건축헌금을 위해 기도를

원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건축비 조달이 빠르면 빠를수록 성전건축이 빨라진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물질 양면으로 꼭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문제이고

기도의 제목이 필히 되어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적인 문제로 토목공사가 3월에 시작하게 되는데 토목공사 설계를 하여 시(市)에 제출하여 문제점이 있는 땅에 건축공사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즉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대시설 특히 수도, 전기, 인입문제와 교통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는 성전본당의 물불이는 문제, 물체집 및 손질, 너무 크기 때문에 음향문제·시각거리 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충현에서는 앞으로 성전건축을 위한 상황보고를 진행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보고 하고자 합니다. 위하여도 기도 해 주시고 열심을 가지셔서 물심양면의 조언과 특히 기술적인 조언을 환영하오니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는 설계과정중 기본전제와 분석(대지분석 및 기능분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새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공기도와 가정에서 새성전 건축
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장 김 기 정 장로

새 성전건축이 간절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 온 성도 모두의 갈망인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의 시급성을 가져 온 것은 작금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부지를 강남에 매입한 것은 8년전의 일이지만 그 계획은 벌써 15년 전부터입니다.

300평 내외밖에 안되는 현재의 건물은 답답하기에 앞서 어떻게 운신 할 수가 없는 긴박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날로 더해 가는 장소문제로 교회의 모든 활동분야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예배는 4부로 나누어서 드리게 된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후대를 위해 천국 일꾼을 양성할 교육장소 문제 더욱 다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새 성전건축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15년 전부터 새 성전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은 좀더 크고 좀더 웅장하고 좀더 아름답고 좀더 치밀한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학 2:8~9의 말씀 「온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전(殿)의 나중 영광이 이전(以前)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이니라」 학 1:8~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殿)을 건축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시로 맡겨 주신 재물로 모든 재료를 사서 전(殿)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를 때 현재의 성전보다 새로 짓는 성전의 영광이 한없이 크리라는 여호와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새 성전건축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며 후대에 물려 줄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사업으로 우리 모두 정성을 바치고 있는 힘을 다 해 거룩한 사업에 봉사합시다. 그리하면 학 1:8~의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

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충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최소한 5,000명이 일시에 수용가능한 본당 건물을 비롯해서 교육관, 선교관, 행정사무실 기타 부속건물 등 막대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건축에는 공법상 여러가지 애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특히 통로(5~6분 이내에 전교인이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통풍(환기소통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음향거리 시각거리 등의 완전무결한 설계와 그에 따르는 시공은 어려운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오로지 기도로 돕고 모든 정성을 바치는 것 뿐입니다.

날로 변화되어 가는 이 세대에 자랑스러운 보수신앙을 바탕으로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며 내일의 2세들을 천국일꾼으로 키워 알날의 보수신앙을 계승토록 후대를 교육시킬 충현교회 그리고 전세제를 향해 복음을 수출할 선교의 센터가 될 충현의 성전건축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룩해 주시고 그 영광을 지금까지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욱 크게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희망의 새해, 새성전 건축 작공을 앞에 놓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힘입어 건진할 것 뿐입니다.

빌 4:6~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전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공기도서와 가정예배시에는 빠짐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새 성전 건축하는 데 기도와 물질로 참여합시다.

내전인 총심 기하기로

○... 해가 바뀌어도 늦출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전도이다. 하나님과 사...
 ○...탄, 신앙과 불신앙의 영적 싸움에는 휴전도 방학도 있을 수 없다. 어제도 오...
 ○...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단히 투쟁해야 한다. 197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
 ○...님의 대 위임령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해 가려 하고 있는가. 교회 설...
 ○...립 4 단계의 청년교회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복음 전파 사업을 전도위원...
 ○...회 지도를 맡으신 정기성 목사를 통해 들어 본다. <편집부> ...

1. 내지전도(국내전도)

가. 정책면에서

(1) 교회내 전도활동상황 파악

전도위원의 산하에는 남녀 전도회와 산업전도회 및 자부 주일학교 면려회가 있다. 이들이 노방전도, 병원 전도 등 활발한 전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 못하고 따라서 적절한 지도를 해 줄 수가 없다. 이제 발족한지 3년여 된 전도위원회가 명실공히 우리교회 전도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각 전도회와 면려회 전도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협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지교회 지도의 개선

과거에는 지교회 교역자의 생활비 지원이 거의 전무였으나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었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교회들 순회 탐방하며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될수록 빠른 시일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려 한다.

(3) 지교회 교역자 초청 훈련

지교회의 자립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역자 문제이다. 교역자가 튼튼하면 자립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숙한 교역자 초청 훈련 매년 연초의 단기수련회, 기타 특별한 경우에 교역자들을 초청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4) 전 교인 전도요원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요 모든 교회의 최고 이상이 되는 전 교인 전도요원화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나 구체적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해온 안드레전도회를 잘 보완·실시하고, 월간충현이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려고 한다.

나. 사업면에서

(1) 지교회 자립

먼저 지교회 현황을 살펴본다. 금년부터는 통일촌교회와 대성리교회가 북한선교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11개 교회가 있다. 전도위원회 산하에 서남교회(제주) 화정교회(진주), 태평교회(대전), 영광교회(성남시, 평안교회) 등 4개 교회가 있고, 여전도회 산하에 천지교회(안양), 성광교회(서울), 성현교회(서울), 매현교회(단양) 등 4개 교회가 있으며, 남전도회 산하에 금현교회(여주), 장락교회(가평), 우리교회(부평) 등 3개 교회가 있다. 이상 11개 지교회 중 금년에 천지

교회와 성광교회가 자립할 예정으로 있다. 이 외에 한 곳 더 자립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두세 군데 지교회를 새로 설립하려 한다.

(2) 특수전도 강화

먼저 군(軍)전도를 강화하려 한다. 군대는 계급사회인 까닭에 계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도의 효과가 큰 것이다. 그래서 지휘관급을 복음화하고자 사관학교 복음운동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육군사관학교의 기독교생수련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또 도서 활동에도 많이 관여하려고 한다. 이와 병행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실시해 온 군중사병훈련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확장하려고 한다. 특히 DMZ 군부자들에게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한다.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구치소전도를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는 여전도회에서 성동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에 나가 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개 한번 집회 때 평균 40~50명이 결신을 하는데 보통 150명 정도 회집하고 있다. 사실 구치소전도는 지교회 설립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 구치소의 비결수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가 많다. 그래서 출옥 후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이 더러 있기도 한다.

병원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산발적인 노매선교단을 조직화해서 올바른 지도를 맡게 하고 환자들 뿐 아니라, 그들을 다루는 의사와 간호원들까지도 대상으로 전도하려고 한다.

2. 외지전도(해외전도)

가. 정책면에서

(1) 파송 선교사의 정착

현재 4곳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파송 우선에서 앞으로는 가족의 정착 및 선교 활동의 정착을 우선으로 하려 한다. 금년은 우리교회의 해외 선교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평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새로운 선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2) 평신도선교사 양성

현재 세 사람의 평신도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지역과 실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신도선교사의 활동성과가 예상외로 좋은 곳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평신도선교사가 전임 선교사보다 활동에 유리한 지위

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선교에 바랄만한 직업인 영신도선교사를 발굴 양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려 한다.

(3) 해외선교의 필요성 홍보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 해외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선교대회, 전시회, 선교지 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나. 사업면에서

제 1회 선교대회를 4월 26-30일에 가지려고 한다.

이 대회에서 가질 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① 현지 선교사 보고, ② 선교 강연, ③ 발제토의, ④ 전시회, ⑤ 책자 발행.

그밖에 전도위원회에서는 자체의 사무경비 작업을 확실히 진행해 가고자 한다. 교인들과 파송 선교사 간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선교에 관한 현지 상황 등 자료 수집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 선교사의 편지 ◇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경강의 복을 abundantly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문안의 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곳 홍콩에 온 후 과거 15개월 동안 지금까지는 우선 이곳 우리나라 교포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부임 당시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교포가 약 1,000명 정도이던 것이 이제는 1,300명이 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포 신자들의 신앙지도와 아울러 불신 교포들에 대한 전도활동은 이곳 한인교회에 주어진 커다란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우들의 후원과 이곳 한인교회 교우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여러모로 발전하였고 복음의 사역에 힘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활동한 내용중 한 두가지를 들이켜 보면 적은 힘이나마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전도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었고, 중국 본토 선교를 목격하는 이곳 선교기관과 유대를 가지고 선교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게 되었고, 이곳 불우 어린이 병원을 위하여 바치회를 열어 각계의 협조를 얻어(중환교회 여전도회도 협조함) 수익금 216만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였고, 이번 성탄절 현금 약 40만원중 반을 이리 이재민을 위하여, 나머지 반을 이곳 불우한 사회사업 기관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게 된 것 등입니다.

어린 아기 같은 이곳 한인교회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복음사역을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홍콩에 와 있는 여러 나라 중에는 이곳 홍콩 사회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바쳐 공헌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던 터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여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 사역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대륙에 있는 8억의 생명입니다. 현재 홍콩에는 수없이 많은 중공의 상인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차와 선박을 통해서 중공에서 생산



<새해를 맞은 홍콩주재 홍선교사 가족>

된 물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과 그들의 자계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이 눈에 띕니다. 국경선을 통하여 사람들이 왕래하며 편지와 소포가 거래됩니다. 관광객이 이곳을 통하여 왕래합니다. 홍콩, 마카오 등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중국 본토에 유학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공에는 현재 형식적이거나 교회가 몇 곳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곳에는 때가 되면 복음 들고 중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과거 중국 선교사들의 후손인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쓰려고 각종 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중국 대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 8억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악마의 세력에 대한 선한 싸움을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8억의 생명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선한 일입니다. 또 이것은 북한에서 믿음하는 우리 동족에 대한 간접선교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선교사업을 위하여 시간을 바치기도 하시며 물질을 바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에

홍콩 주재 선교사

홍 중 만 올림

교육위 자체사업 및 교사훈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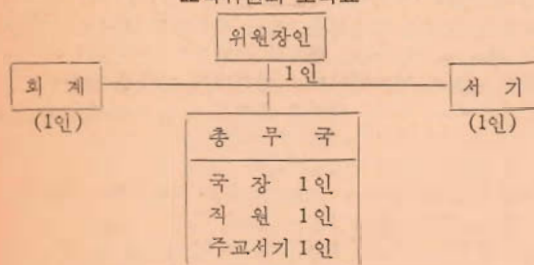
- ◇... 점차적으로 다져지는 교육위원회의 그 역할에 크게 기대를 가져보는 1978...◇
 ◇...년이다. ◇
 ◇... 작년에 기능별로 편성된 교육위원회가 금년에 한걸음 전진해 연구를 결해...◇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로 조직이 바뀌었고 또한 금년부터는 전적으로 주일학...◇
 ◇...교사사업을 모두 관장하고 종합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과의면에서 강화했다. ◇
 ◇...금년의 주일학교의 운영방안을 교육위원장 정상우 목사가 소개한다. ◇

교육위원회의 조직개편

지난 해에 6개의 기능별로 나누어 조직되었던 것을 행정위원(18명)과 연구위원(6명)으로 나누어 연구위원들은 특별문제가 있을 시 이를 공동으로 맡아 연구 처리하도록 한다. 평시에는 6명이 1개분과씩 맡아 업무를 처리한다(6개분과: 교과분과, 음영분과, 인사분과, 행사분과, 행정분과, 공보분과).

또한 위원장 밑에 총무국을 두고 국장 1인, 직원 1인, 주교 서기 1인을 두어 모든 행정절차 및 행정처리를 담당토록 한다.

교육위원회 조직표



교육위원회			
행정위원		연구위원	
① 주교 12부 부장장로 12명		① 교역자	2명
② 성경학원 원감 1명		② 집사	4명
③ 교역자	3명		
④ 집사	2명		

금년 교육위원회 운영방안

금년도 교육위원회 사업으로 아래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

1. 주일학교 교과과정의 설정 및 재정비

가. 교과과정 설정

- ① 영아부 ② 산업전도교육부
 ③ 청년부 ④ 노년부

나. 교과과정 재정비

- ① 새신자부(어린이·장년)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대학부 ⑧ 장년부

다. 기타 교재에 대한 조사연구

2. 교사의 교육과 훈련

가. 임시 교사제의 최대한 억제

아직 지도자양성부를 수료하지 못한 교사들은 금년중에 전부 수료토록 권장, 지도자양성부와 협력하여 시간표등을 조정한다.

나.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 ①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 실시
 ㉠ 교사단기 수련회(3회)
 ㉡ 교사특강(4회)
 ㉢ 자체교사훈련(부별)
 ㉣ 학부지도(4회)
 ㉤ 실무자교육(4회)
 ㉥ 월간총현등
 ② 모든교사의 성경주석 구입장려 지원협조
 ③ 주교교사의 필독서를 선정 장려
 ④ 항구적인 교사교육 내용과 방법 연구

3. 제반 주일학교 행사의 질적 향상

주일학교에서 실시하는 제반행사를 보다 철저하게 심의하며 교과과정과의 관련여부를 확인하며 주일학교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가. 행사의 교육적 내용 확인

나. 재정관리의 타당성 수시 확인 지도(월 1회)

4. 교회 당면목표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

지금까지 각부의 목표, 행사 등으로 교회의 현재의 중요사업 시책을 학생들에게까지 주지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오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보다 확실하게 교회의 당면목표를 학생들에게까지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한다.

가. 교회의 당면목표 인식

먼저 교사들로 하여금 교회의 당면목표를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나. 선교와 새성전건축의 강조

특히 선교와 새성전 건축을 위한 목표를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연 1회정도 교과과정에 추가 반영토록 한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26:1-4

요동치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하므로 어떠한 위험에도 요동치 않았읍니다. 물질에 쫓기는 자, 세력에 위촉을 받는 자, 인정에 끌리는 자는 신앙이 요동합니다.

모세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바로왕 앞에 있고 홍해 앞에서도 수염을 날리면서 여유있게 설 수 있었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일함시다. 위태한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시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3절)”을 잊었거나 의심했던 주의 진리에서 못 살고 탈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목전에 있으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진리대로 살았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도 교제치 아니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과만 교제하였고, 육적으로는 신실한 자하고 교제하였읍니다.

시편 27:1

생명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게하는 동안 나를 죽일 자는 있을 수 없읍니다.

다윗은 담대한 용사였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도우심을 받는 동안 담대할 수 있었읍니다. 귀새끼라도 사자의 등에 있으면 해할 자가 없읍니다. 인생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동안 해할 자는 없읍니다. 사자의굴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의 생명의 능력이므로 원수가 죽이지 못했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악마나 용사가 무섭지 않습니다. 공포와 겁이 있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를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담대한 생활을 살시다.

이사가 선지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렇게 말했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시편 27:2

나의 원수를 넘어뜨리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패하여 넘어졌도다』

올바로 살려고 하는 자를 괴롭히고 죽이려 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손을 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죽을 일을 계획하고 실패하고 죽읍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려던 하만, 다니엘을 죽이려던 왕과 간신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 의인의 살을 먹으려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죽었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3절에서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을 치는 것처럼 많은 원수가 나 하나를 놓고 몰아쳐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의논하고 함정을 놓아도 두렵지 않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때에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읍니다.

바울 사도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갚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9-21)고 말씀하여 원수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밝혔읍니다.

시편 27:14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①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일단 후에 복 받을 것이 생각나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참게 됩니다.

②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앞길에 막힌 듯 하여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히 축광할 수 없으니 덤비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을 경경하게 될 것입니다.

③ 어떤 일은 우리가 너무 덤비므로 실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요히 기다리면 실수없이 일이 잘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경솔하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일이 좋을 때가 많읍니다.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1700자 3행

신앙 성장의 비결

오 태 용

공부 잘 하는 학생의 공책을 보면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노트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가 공부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이 있기 전에 자기 노트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된 것이다.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그는 남이 알지 못하는 노력을 밤새도록 하였을지 모른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다. 설교 시간에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노트를 하는 신자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냥 일회적으로 듣고 흘려보내기도 하는 공책에 잘 적어서 다시 한번 메세지를 음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인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 있어 크게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교를 기록해 놓는 것은 백번 좋은 일이나 듣고 기록한 말씀대로 살지를 알으니 신앙생활에 발전과 진보가 없게 된다. 신앙은 성장하는 나무와도 같은 것인데 피목하는 신앙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기록해 두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데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 100주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의 뚜렷한 선을 긋지 못하고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원인을 이런 데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인지.

내가 아는 어느 지성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 참 삶이 어떠한 것임을 통감해 통해 들었다. 그리고 노트에 잘 정리해 두었다. 다음 그는 정리한 내용을 재음미하며 거기서 제시한 원리대로 삶을 사는 연습을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활이 전과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재미와 기쁨이 있는 생활이었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얘기였다. 그 이후 그의 생활은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중에 기쁨을 선사하는 새로운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소리 없이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을 먼저 자기가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의 거저없는 고백이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는 그 좋은 말씀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평강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공부 잘 하는 학생처럼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대로 사는 연습을 많이 해서 신앙의 성장을 기해보고 싶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Have Thine Own Way Lord!)

(세 310 : 개 411 : 합 27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의 작사자인 폴라드양(Adelaide A. Pollard)은 1862년 아이오와주 브룸필드에서 태어나 대학을 마치고 여러가지 교육을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모친과 같이 살면서 사립학교 교사생활을 하며 발성법에 관한 대학교재를 저서하기도 했다. 그녀는 수년간을 당뇨병으로 고생했는데 시카고에 있을 때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고, 마침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친구 윌러양(Lily L. Waller)은 당시 신유은사의 전도자 도위목사의 집회에 가서 직접적인 치유를 받게 했다. 거기서 기적적인 고침을 받은 폴라드양은 일어나서 공중 앞에 나가 자기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간증하기도 하였다.

그 후 한동안은 몰랐으나 계속해서 신병으로 고생해야 했다. 그러나, 도위목사의 신유은사에 대한 신앙은 적지 않았으므로 도위목사의 집회를 도우며, 그녀 자신도 거리로 나가 집회를 가지면서 조그만 휴대용 종금을 가지고 다니며 통행인에게 찬송을 불러 주기도 했다. 친구 윌러양과 같이 섰워드(Sonford)란 이름하에 순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이 가까와 몸을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1895년 그가 신경계통병으로 병상에서 고생할 때 교회사를 읽게 되어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섰워드가 메인주에서 배 살 돈을 모금했으나 실패하자 폴라드양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갈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회당에서 뉴욕 나이엑에 있는 “기독교인 선교사 연합훈련학교”에서 수년간 머무르며 가르쳤다. 그때 성서를 탐독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그녀 일생에 있어 중요한 문기점을 맞이하였다.

1902년 어느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주님이여! 우리 생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종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 마음에 괴롭고 무거웠던 것이 다 사라짐을 느꼈다. 그녀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저녁에 돌아와서 예레미야 18장 1~6 절의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인간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기본죄라고 받아들였다. 자기의 계획대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다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굴복하여 토기장이가 자기의 선한 의견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한대로 다시 만드시기 하였다. 하나님은 그 예정의 때가 되어 폴라드양에게 남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허락하셨고 자그마하고 연약한 한 여인 폴라드양은 그의 생의 전폭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최후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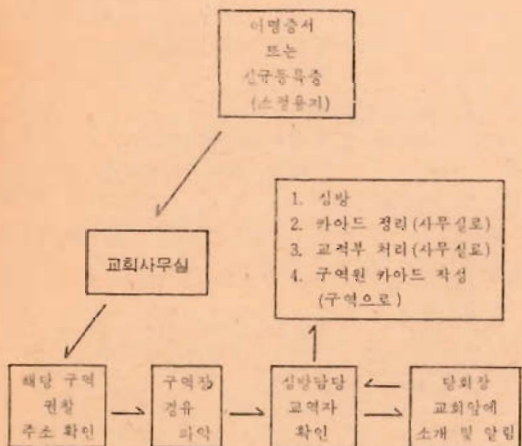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12월중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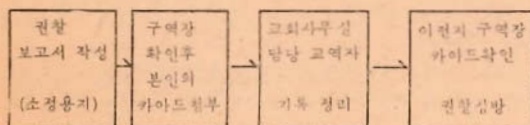
- 김경생군/김복남 집사 3남 6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정길남군/유년부 교사 8일 오후 2시 인천 내리교회
- 권정남양/서상옥 집사 딸 10일 12시 을지예식장
- 홍화옥양/장만실씨 2녀 13일 오후 3시 Y.W.C.A 강당
- 홍인자양/삼성구역 13일 12시 본교회당
- 최완근군/최팔성 집사 정삼례 권사 2 남) 13일 오후 3시 기독교대학관
- 김계건군/김천준 장로 백현옥 권사 아들과 지혜숙양/수유구역 13일 12시 기독교 대학관
- 전인규군/하광숙 집사 아들 19일 오후 1시 본교회당
- 정운명군/김석배씨 아들과 안영자양/초등부교사 19일 오후 2시 본교회당
- 오태용군/봉천구역 고등부교사 23일 오후 1시/본교회당
- 전순자양/김종열 집사 장녀 29일 오후 1시 본교회당

등록 절차

(1) 이명 및 신규등록 계통



(2) 주소 변경 보고



해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구역장 노우트 24 ■

사무행정 교육(2)

백성 롱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이번에 계속해서 지난 12월 16일에 한 교육실시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기로 한다.

구역권찰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구역장들과 권찰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1. 구역집회를 관장하는 일

우리교회는 격주로 금요일 저녁에 구역집회가 있다. 이 모임은 구역장이 순서를 정하여 성경공부·예배·친교, 이 셋으로 구분해서 갖게 된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본지 76년 6월호 참조) 공부와 예배와 친교는 꼭 구분해야 한다. 인습에 젖어서 성경공부와 예배를 거의 구분 없이 하고 있으나 좀 더 연구해서 질서있게 되어야 할 줄 안다.

2. 심방과 보고하는 일

교우들의 동태와 교세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길은 역시 구역을 통해서 심방을 하고 보고를 받는 길에 있다. 매주 1회 권찰들은 교우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때로는 권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3. 이웃구역과 협력하는 일

경조간 이웃구역과 협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 특히 초상을 당했을 경우 교회적으로 광고가 되기는 하지만 해당구역 구역장은 지체하지 않고 협력구역(별도로 반편성한 것에 따라서)에 연락하여 성도교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계절행사 참여와 협력사항

연초에 단기수련회가 있고 여름에는 하기행사(여름학교, 작기관수양회, 전도대 파송등)가 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구제하는 일이 있는데 이 모든 행사는 직접 참여하거나 권찰들이 협력해야 할 일들이다.

5. 성례식을 전후해서 할 일

① 작금신앙문답(세례·입교·아세 등)대상자를 잘 조사해서 문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예비공부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초신자의 경우, 권찰들이 문답현장까지 인도하는 일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③ 성례식이 끝나면 신앙문답 서약자 명단이 각 구역으로 배부되는데, 구역장은 이 명단에 의하여 신규별로 구역원을 재확인함으로써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본지 76년 5월호 참조).

6. 해외이주 예정자 교육

구역에서 해외이주 예정자가 있을 때에는 출국 약 2개월 전에 보고하여 그 실태를 파악케 한 후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본지 76년 7월호 참조).

이밖에 신혼부부교육과 노인들을 위한 경로행사와 노인심방에 적극 협력하는 일들이다.

새해 교회 기관장 임직원 명단

◇... 당회 및 각지회는 새해들어 1978년 한해를 이끌어 갈 각 기관...◇
 ◇...의 기관장 및 임원을 선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각 기관장 및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당 회

당회장: 김창인, 서기: 송순일, 부서기: 이태규

2. 제직회

회장: 김창인, 서기: 강순용, 부서기: 손동운 박치민, 회계: 최성립, 집일조회계: 송환창 서일영 정운석 박인세 강은원, 월정회계: 윤성철 최성현, 집제회계: 마성락 김정철 김정선, 서무부장: 윤종순, 예전부장: 김영삼, 영선부장: 박창수, 구제부장: 이창준, 봉사부장: 이희원, 미화부장: 이옥려, 차장: 박옥식, 감사: 김창배 오승률 황기성 이용선 정석태.

3. 구역관찰회

회장: 백성룡, 서기: 신현상, 부서기: 김원선, 김재균

4. 성가부

성가부장: 임광식, 제일성가대장: 노광현, 제이성가대장: 이병학, 여성성가대장: 박옥식, 제일지휘: 김연술, 반주: 이승준, 제이지휘: 김중석, 반주: 조희영, 여성지휘: 최찬후, 반주: 서은숙

5.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상우, 서기: 김중석, 회계: 이용선 주일학교

- ① 새신자부(어린이) 부장: 김한울, 지도: 이성근
- ② 새신자부(장년) 부장: 김한울, 지도: 이성근,
- ③ 영아부 부장: 김은호, 지도: 정소영,
- ④ 유치부 부장: 김희철, 지도: 정연희,
- ⑤ 유년부 부장: 윤명식, 지도: 김영희,
- ⑥ 초등부 부장: 한경일, 지도: 김석원,
- ⑦ 중등부 부장: 김중석, 지도: 윤형철,
- ⑧ 고등부 부장: 이용선, 지도: 이승근,
- ⑨ 산업전도 교육부 부장: 오태희, 지도: 김하진,
- ⑩ 대학부 부장: 윤용규, 지도: 정관일,
- ⑪ 청년부 부장: 홍중섭, 지도: 윤영탁,
- ⑫ 장년부 부장: 이원철, 지도: 김중택,
- ⑬ 노년부 부장: 정석태, 지도: 김재창.

6. 전도위원회

위원장: 최석주, 지도: 정기성, 서기: 박찬섭 회계: 오진국

7. 재정위원회

위원장: 윤종성, 서기: 오정현, 위원: 이용선 한경일 우기전 박치민 정봉조 문옥순 김영남

8. 건축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서기: 노광현, 회계: 이병학, 위원: 우성원 위영환 임광식 최석주 한경일 이창업 심인경

안윤진 정선화 오희명 이옥녀 백영희

9. 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명옥, 서기 및 회계: 김창배,

10. 인사위원회

위원장: 김창인, 위원: 송순일 최석주 한명옥 황기성 윤종순 임광식 이용선 위영환

11.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창인, 위원: 송순일 한명옥 최석주 조현명 김기정 윤종순 윤용규 김중석

12. 성경학원

원장: 김창인, 원감: 최석주, 교무: 김태현, 이사: 조현명 김기정 위영환 임광식 최석주 정봉조 이옥녀 감사: 윤종순 송순일

13. 총현동산(재단법인)

이사장: 김창인, 전무이사: 한명옥, 이사: 우성원 윤종순 위영환, 감사: 김기정 조현명

14. 출판위원회

위원장: 조현명, 지도: 이성근, 서기: 김은호, 위원: 김기정 위영환 윤종순 윤종성 최석주 정석태 조선근 김은호 정상우 정기성 이성근 김태현 윤형철 김영개 김차생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제원 이사례 백옥인

15. 해외복음선교회

회장: 위영환, 부회장: 최석주 김봉재, 서기: 한경일, 부서기: , 회계: 김성택, 부회계: 신현상,

16. 기도원관리소

소장: 우성원, 위원: 김한울 최성립 오태희 장봉순 노광현

17. 남전도회

회장: 윤종순, 부회장: 신영대, 서기: 서동석, 부서기: 김원선, 회계: 박치민, 부회계: 강모용

18. 여전도회

회장: 안윤진, 부회장: 노영숙 전순자, 총무: 이신일, 서기: 서은숙, 부서기: 박인옥 임순철, 회계: 김상순, 부회계: 전인화 김진만

19. 산업전도회

회장: 김중석, 부회장: 이원철 노영숙, 서기: 손동운, 부서기: 오정현, 회계: 김영근, 부회계: 최상규

20. 권사회

회장: 이영주, 부회장: 전순자 양정백, 서기: 이덕순, 부서기: 백죽심, 회계: 신군자, 부회계: 안인현

우리 사명을 다짐하는

선교주일—1월 29일

전 세계에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를 감당키 위해 우리교회에서는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의 주일로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며 선교의욕을 고취하고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한다. 금년에는 그 4회째로 29일에 선교주일로 지킨다.

이날은 대에배설교는 물론 각부 주일학교 설교도 <선교>를 주제로 행하며 선교주일예배를 드린다. 예배시에 해외복음선교회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일이 있고, 오후에는 해외복음선교회 텔레비트 선교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또한 저녁예배는 해외복음선교회의 헌신예배를 드린다.

해외복음선교회는 이 선교주일을 맞아 지난 22일 선교감람뿔을 발간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배부했다.

윤두한 장로—명예장로로

박옥식 권사—감사장수여

교회는 지난 ○월○일 저녁예배서 금년들어 만 70세가 되는 윤두한장로를 명예장로로 추대하는 추대패와 기념메달(금)을 증정한다. 또한 계속몇 년동안 대에배설의 꽃장식을 맡아해 온 박옥식 권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교회설립 25주년 기념준비위원회 구성

교회는 교회설립 25주년을 맞아 25주년 기념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교회는 1953년 9월 6일 설립하여 금년 9월 첫주일에 25주년을 맞는다.

준비위원 : 송순일(당회서기) 윤종순(서무부장) 조현명(출판위원장)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임원을 조직하고 행사계획을 수립한다.

이승근·윤형철·김중석 전도사를 전임으로

당회는 1월 1일부터 현재 고등부지도 이승근 전도사(총신 신학연구원 졸업)와 중등부지도 윤형철 전도사(총신 신학연구원 졸업), 제이성가대 지휘 김중석 전도사(총신 신학연구원 졸업)를 교회 전임전도사로 임명했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 1978. 1. 1 현재 (매월 첫주 기준)

<집회>

<헌금>

구분	남	여	계	구분	남	여	계
예배	149	377	526	예배	145,970	333,070	393,200
주일 낮	351	895	1,246	주일	393,200	100,270	3,578,630
주일 저녁	405	838	1,243	집회	308,900	1,343,100	20,500
새신자	96	216	312	새신자	78,000	4,827,087	30,000
유아부	206	351	557	유아부	101,000	3,460	30,340
초등부	124	333	457	초등부	20,000	32,520	22,150
중등부	11	12	23	중등부	34,250	47,760	81,720
고등부	18	60	78	고등부	11,531.93		
신자	59	52	111	신자			
유아부	61	64	125	유아부			
초등부	127	124	251	초등부			
중등부	131	157	288	중등부			
고등부	164	151	315	고등부			
신자	162	155	317	신자			
유아부	84	99	183	유아부			
초등부	92	103	195	초등부			
중등부	28	214	242	중등부			
고등부	28	67	95	고등부			
신자	8	90	68	신자			
계	2,304	4,328	6,632	계	11,531.93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입
2,735	2,437/3,748	1,381/2,519	305/244	2/49/354	502/631

토막소식

*...교회는 1월 철야기도회를 6일(금) 유년부실에서 은혜중에 가졌다.

*...어린이새신자부에서는 3월까지 100명 목표를 위해 매일 열심으로 기도중이다.

*...당회의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이 있었다. 초등부 성가지휘에 새로 황영호선생을, 중등부 부지도에 이영호 선생을 임명하였다.

*...유치부는 주일 아침 9시에 박성수 박사를 모시고 제일성가대실에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5일 열매 11반의 허순이 선생을 모시고 연구수업을 가졌다.

*...유년부는 1월중으로 교사전체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부는 1월 29일 반별친송부르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등부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임원수련회를 중등부실에서 가졌으며, 1월 14일 오후 2시에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고등부는 1월 8일 신입생 환영회를 4층 예배실에서 가졌으며 1월 9일 수양회 준비 철야기도회를 지하실에서 가졌다.

*...고등부는 1월 15일 교사자체훈련을 가지고 교육을 위해 재무장을 다짐한 바 있고, 1월 22일헌신예배를 수양회 강사이신 양승달 목사를 모시고 드렸으며 이어 철야기도회를 지하실에서 가졌다.

*...산전전도부에서는 1월 28일 반장훈련을 가졌다.

*...대학부는 1월 1일 신입생 환영회를 4층 예배실에서 주교 주최로 가졌었고, 1월 8일에는 신년도 처음으로 헌신예배를 드렸으며 1월 15일에는 대학입시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교육위원장인 정상우 목사를 모시고 4층에서 가졌다.

*...대학부는 1월 20일 21일 양일간 담임주관으로 반별친교회를 가져 반원의 친교와 단합을 다짐하였으며 27일에는 교사학생 합동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청년부는 1월 2일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신년 철야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으며, 1월 30일에는 전도세미나를 정성구 목사를 모시고 가질 예정이다.

기 자 석

*...신년을 맞으며 교회에서는 각종 수련회가 열렸다. 1월 3일 교역자수련회를 시작으로 장로·직원·평신도·제직·주일학교교사·성가부 수련회가 연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5일부터 3일간은 부흥회를 열어 1978년을 살아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결심할 수 있었다. 매년 연초에 이처럼 실시되는 수련회는 우리교회만이 갖는 특색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것은 이 수련회를 통한 어떠한 목적 이상으로 매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아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교회의 간절한 소망인지도 모른다.

*...또한 지난 1월 19일 고등부의 동기수양회를 시작으로 각부 주일학교의 계절 학교(겨울)가 그 막을 올리고 있다. 교역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교사로부터 영아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1월은 온통 훈련, 훈련의 달인 것이다. 2부 주일학교의 경우 공사중인 기도원이 완공될 것을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대부분이 교회에서, 수양회를 갖게 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오히려 또 하나의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서 좋은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훈련의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좋은 환경을 찾고, 보다 훌륭한 강사·교사를 요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는 일이다. 환경에 대한 편견, 강사·교사에 대한 편견, 자기만이 쌓아 놓고 있는 자만의 편견, 자기방어의 편견, 이와같은 편견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환경과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실시될 주교 2부의 수양회 그리고 매주의 예배와 집회들에서 우리 자신의 편견을 버린다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천국의 부요함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교회 문서활동의 일선에서 음으로 양으로 꼭 관여해 오셨고 또한 「월간충현」을 오늘날의 것으로까지 이끌어 발전시켜 문서활동면에서 살아 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근 장로님과 정은표 집사님이 보다 더 큰 일을 위해 금년부터 월간충현의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어 매우 걱정되며 섭섭하기 그지 없다. 지금까지 월간충현을 위해 남모르게 애쓰고 희생한 것의 십분지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 실무진을 구성했기에, 앞으로 매월호가 안타까운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시작할 때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마음이 앞서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쌓아 온 것에 행여 흠이라도 내지 않을까 두렵다. 예전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비판해 줄을 크게 확신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될 수가 있다.

*...출판위원회의 지도교역자인 이성근 목사님이 주간으로 오셨고 편집위원들이 보강되었다. 월간으로 꾸준히 발행된 지도 4년째로 접어들면서 이제 국내외로, 교회 내외로 월간충현이 알려졌고 또한 구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요구에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금년부터는 내적인 충실을 다지며 많은 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싶다.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지난 해 국외에서, 각 지방에서 성탄파야드, 신년 연하장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성근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제원

이사례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태용 고제원

기자/성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 간 충 현

1월호 통권 제49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1월 29일 발행

편집하고 나서

○...늘 새로와야 할 신년호가 항상 새롭지 못한 연말의 밀린 업무처리와 새해의 새로운 조직들을 정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급년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1월호를 마무리지어 송고(送稿)를 끝내니 아쉬운 마음뿐이다. 늘 주위에서 권고해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지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수삼년 전부터 그려오고 있다. 그것은 세계교회로의 발돋움을 위한 새성전 건축, 주는 교회로서의 국내외전도, 그리고 교육의 문제이다. 이 목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일감하는 뚜렷한 우리교회의 당면과제이고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이의 발전적인 실현을 위해 매년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만이 남아 있다. 1978년에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이는 전교인이 이 교회의 현재의 목표를 인식하고 하나로 되어야만이 실현 가능한 일이다. 늘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바라며 특집을 꾸민다.

○...신년의 새로운 편집계획이 2월호부터 나간다. 지난해 1년동안 계속해 온 윤형철 전도사님의 이단 종교비판이 지난 2월호로 끝나고 이성근 목사님의 「평신도를 위한 알기쉬운 기독교교리」가 계속 연재된다. 몇가지의 새로운 기획들이 다음호부터 시작될 것이다.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린다. <이>

월간충현은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충현교회 교역자

1978년 1월 1일 현재

□ 위임목사



김창인 목사
(당회장)

□ 부 목사



백성룡 목사
(구역관찰회장)



김재철 목사
(노년부지도)



정상우 목사
(교목위원장)



김종택 목사
(장년부지도)



정기설 목사
(청도위지도)



정관일 목사
(대학부지도)



이성근 목사
(출판위지도)



김하진 목사
(성가부지도)



김태현 목사
(성결학원)

□ 남전도사



이성근 전도사
(고독부지도)



윤형철 전도사
(종동부지도)



김중석 전도사
(제이성가지위)



윤명탁 강도사
(청년부지도)



이준교 전도사
(청년부지도)



김명한 전도사
(대학부지도)



김명희 전도사
(유년부지도)



김석원 전도사
(종동부지도)



김수설 전도사
(서전부지도)



이명우 선생
(새신자부지도)



김창훈 선생
(종동부지도)



김명해 선생
(청년부지도)

□ 공로전도사



김명운 전도사



이명달 전도사

□ 여전도사



이두란 전도사
(성방담당)



최순복 전도사
(성방담당)



강형선 전도사
(성방담당)



구명신 전도사
(새신자부지도)



김형선 전도사
(성방담당)



김경설 전도사
(대학부지도)



정명희 전도사
(유치부지도)



정소명 전도사
(영아부지도)



김순애 전도사
(청년부지도)



박현모 전도사
(노년부지도)



이명균 선생
(새신자부지도)



장선애 선생
(유치부지도)



김명희 선생
(영아부지도)



〈어느 기도시간에……〉

우리들의 아침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햇빛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악한 것 더러운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으로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행위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은혜로 사오니 믿음과 건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항상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